

왕의 최측근, 살아선 막강한 영향력 사후엔 '쓸쓸'

52 내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 양자의 흔적이다. 하지만 존재의 역할은 꼭 그렇지는 않다. 보이지 않고 새겨지지 않아도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왕들의 삶에 생수, 비타민이 되고, 때로는 독극물이 되기도 했던 이들이 내시다. 소수는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내시는 사극 드라마에 감성적 관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등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김처선은 조선초 초기 내시로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에 모셨다. 그는 내시이면서도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산군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이 궁중에서 자신이 창안한 처용희(處容戲)를 베풀고 음란한 거동을 벌이자,

“이 늙은 신이 일곱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 통하지만 고금에 전하와 같은 짓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라고 직간하니, 연산군이 크게 노하여 활을 한껏 당겨 김처선의 갑옷대를 쏘아 맞추었다.

그러나 김처선은 피를 흘리며 옆구리의 화살을 부여잡고 다시 말하길,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연산군이 화살 하나를 더 쏘아 맞히고 땅에 넘어진 김처선의 다리를 잘라 버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다. 이에 김처선은 연산군을 쳐다보면서,

“전하께서는 다리가 잘리시고서도 걸어 다닐 수 있으십니까?”

연산군은 분기탱천하여 그의 혀를 자르고 친히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어 시체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 뒤 김처선의 가산을 몰수하고 그의 집을 파서 연못으로 만들었다. 양자인 이공신과 7촌까지의 친족도 모두 연좌시켜 처형하고 본관인 전의(全義)도 없앴으며, 부모의 무덤을 파헤치고 석물(石物)을 없앴다. 또 연산군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김처선에 관한 일로 어저시를 내리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성에게 잔인하기 날 따를 자 없건만
한갓 내시놈이 날 능멸할 줄이야.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가눌 수 없어
바닷물에 씻어도 한이 남는구나.



① 초암산에 있는 내시 묘 ② 비석에 '상궁 박씨'라고 새겨져 있다. ③ 상궁 박씨의 묘 ④ 상궁묘의 석물로 보이는 석상.

일곱 임금 섬긴 김처선, 조선 최고 충절 내시 초암산 분묘 1127개 절반이 '내시 공동묘지'

또 동·서반(東·西班)의 대소 관원 및 군사 중에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거든 모두 고치게 하였으며, 일력(日歷)의 처서(處書)의 처(處) 자도 김처선의 이름과 같다하여 조서(詔書)로 고치도록 했다.

심지어 처(處) 자는 죄인 김처선의 이름이므로 모든 문서에 처(處)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례로 사인(舍人) 상몽정(尙夢正)이 교서를 지을 때 처(處)자를 썼다 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토록 했는데,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 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다시 국문하지 말도록 한 일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된 뒤, 연산군이 없었던 전의(全義)를 복국했다. 김처선은 무시무시한

연산군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조선초 최고의 충절 내시다. 비록 가장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내시 이 없는 소리’란 속담이 있다. 내시는 거세를 했기에 가늘어진 목청으로 이 없음을 한다는 뜻으로, 맥없이 지루하게 흥얼거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음흉한 눈초리와 가냘픈 목소리, 그리고 쪼그라진 어깨에 종중걸음을 걷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고정 관념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자인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정사 깊숙이 개입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한 신분의 사람

들이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 사이에 해발 100여m의 초암산이 있다. 평범한 야산 수풀과 바위 사이에 석물들이 흩어져 있다. 이 일대를 조선시대 분묘군(사적 440호)이라 부른다. 분묘 유적이 1127개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버려진 무덤, 내시들의 공동 묘지다.

후손들은 내시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내시들의 무덤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많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모시며 궁궐에서 근무하는 벼슬 높은 관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 받았다. 그러나 내시들은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존재

까지도 점점 잊혀져 갔다.

내시가 궁궐에서 생활하다 궁에서 생을 마쳤을 거라는 상식과는 달리 내시부는 경복궁 바로 옆 지금의 효자동에 해당하는 지역, 궁 밖에 있었다. 왕실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내시부는 궁궐로 파견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내반원이라 한다.

내시는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궁중 내의 많은 고급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들이 관여될 여지가 많았다. 특히 극비에 속하는 정척, 간첩, 국제첩보에 관한 사항에 내시들이 간여한 경우가 많았다. 또 부를 축적할 기회도 많았는데 이는 왕실의 재산관리, 각종 공사 등을 이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내시부(內侍府)에는 140명의 내시가 있었다. 이들은 궁중 내 살림을 맡아보았으며 최고위직인 상선, 즉 판내시 부사의 경우 임금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중요한 일을 했다.

내시는 왕을 가까이 모신 관계로 그들 중에는 공신이 된 자가 매우 많았다. 내시 출신의 대표적인 공신으로는 세종의 왕위 찬탈을 도와 정난공신과 좌익공신 2등에 각각 책록된 하음군 전군, 성종조 때 나이 장군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역대 공신 1등에 책록된 흥양군 신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중종 즉위에 공을 세운 정국공신 4등에 6명, 선조의 피난을 도운 공으로 호성공신 3등에 24명이라는 많은 내시가 책록되었다.

내시도 일반 사대부나 평민과 마찬가지로 부인과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대부와 같이 첩도 두었고, 아내가 죽으면 새로 재혼을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내시의 아내로는 평민뿐 아니라 왕실과 줄을 대려는 양반 사대부 가문의 규수도 많았다. 내시의 부인은 사대부의 부인과 같이 남편의 품계에 따라 정경부인(1품)·정부인(2품) 등 높은 봉작을 받기도 했다. 내시의 아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많은 전토와 노비, 금은보화 등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성적 불구자인 남편과의 잠자리란은 볼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내시 아내들은 이런 성적 욕구를 취미 생활을 통해 해소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화되기도 했다.

이밖에 환관촌의 내시 아내들끼리 동성애도 성행했는데, 이를 속칭 ‘대식(對食)’이라 했다. 대식 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방님, 마님 하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대식 연인끼리 손을 묶고 나란히 목매어 정사한 사례도 있었다.

레도 있었다.

비교적 천한 출신으로서 권력과 풍요로운 삶 모두를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씨 없는 남자’로서의 그들의 애환은 안타까움 그 이상이었다. 환관들은 어떤 물건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없는 개를 보더라도 꼬리 없다 혹은 꼬리가 끊어졌다고 하지 않고, 사슴 꼬리를 가진 개라는 식으로 비유해서 말했다. 그들은 ‘자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해서 자른다 대신 ‘찌른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환관들끼리만 통하는 환관 특수용어(은어)가 풍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술 때 잘려나간 성기와 고환은 어떻게 했을까? 내시의 절단된 양물을 고승이라 부르는데, 이는 주인인 내시보다 낫다는 뜻이다. 수술 후 절단된 남근은 썩는 것을 예방하고, 피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횡가루가 담긴 그릇 속에 넣었다가 썩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다시 참기름 속에 넣어두었다. 참기름이 다 스며들고 나면 그것을 작은 헝겊 주머니 속에 있는 ‘목갑’ 속에 넣고 잘 말뺐다.

이후 김일을 택하여 수술 받은 환관의 사랑에 모시는데, 반드시 대들보 위에 놓았다. 그러다 그 내시가 죽으면 대들보 위에서 그 목갑을 내려 죽은 환관의 육신에 원래대로 바늘로 기워 뒀다. 이는 죽은 환관이 온전한 남자가 되어 구중천에 가서는 몇몇한 신분으로 조상님을 만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내시 김계현은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선조를 구했다. 그 공을 인정하여 공신에 봉하되 이에 반대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분명한 공을 세웠는데도 내시라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다. 역사는 그들을 비하하고, 분란을 일으킨 행적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사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내시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역할은 변형된 형태로 현재도 여전히 남아 있다. 권력의 최지근거리에서 왕의 손발이 되고 왕과 가슴을 터놓고 대화한 이들이 내시다. 탐욕스런 내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민심을 울곧게 전달하고 충절을 왕을 섬기는 내시는 어느 고관대작보다 존경받아 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소리쳐 볼까, 후자에 속한다고 자신하는 내시는 손들어 보시오!

글=이우성(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불교 전통의식 교육안내

최근 종교평화정책으로 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속세를 벗어나 산사에서 수행정진 해야 할 스님들께서 도리어 서울광장에 모여 잘못된 정책을 꾸짖고 규탄하는 모습을 보며 소승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소승은 출가 59년간 불보살님을 모시면서 여법한 전통의식을 보고 들으면서 정진해왔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되기를 원하고자 지금껏 배운 불교전통의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안채비 전문의식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어느 때나 여법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였습니다.

- ◆ 교육내용 : 전통작법 구감 안채비 : 시련,신중작법,향수례,상단,중단,지장,시왕단,대령,관옥,시식,연단 거체비 : 만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작법 나비춤 서울 다루는 법 : 목탁,요령,태징,북,종성(전과목 실기지도)

- ◆ 참가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가능
- ◆ 교육기간 : 2008년 9월 24일(음 8월 25일) ~ 28일(음 8월 29일) [4박 5일]

- ◆ 장 소 : 학림사(불교전통의식 교육원)
-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
- ◆ 문 의 : ☎ 062)222-4133 (모집인원 선착순 50명)